

이창명, 거짓말 탐지기 조사 거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동석자는 출석에 불응해 계속해서 조사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윤-유이, 올 초부터 열애

그야말로 '선남선녀' 커플이다. 연기자 이상윤(35·오른쪽)과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겸 연기자 유이(28·왼쪽)가 열애 중이다. 서울대 출신의 연예계 대표 '엄친아'와 성공한 가수이자 연기자의 만남으로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일 한 연예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올해 초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뒤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만남이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커 연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린 'MAMA'(엠넷 아시아뮤직 어워드) 시상식 포토콜에 팔짱을 끼고 모습을 드러내 화제를 모았다. 당시 팬들은 "8등신 모델 커플"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며 두 사람을 반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이나 어떠한 인연도 맺지 않았던 터였다. 시상자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을 뿐이다. 이후 한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로 서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관계자는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기며 서로를 살뜰하게 챙긴다"며 "모두 모델 못지않은 준수한 외모를 가져 '기럭지 커플'이라 불리며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인들이 그렇듯 다투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 시간이 길지 않고, 서로 챙기며 신뢰하고 믿는 만큼 애뜻하게 사랑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애프터스쿨의 멤버로 데뷔한 유이는 KBS 2TV 주말극 '오작교

형제들'을 통해 연기자로 인정받기 시작해 최근 종영한 MBC 주말드라마 '결혼계약'에서 안정되고 성숙한 연기를 선보여 '유이의 재발견'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상윤 역시 최근 개봉한 영화 '날 보러와요'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방송사 PD 역을 연기하며 눈길을 끌었다.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두 번째 스무살'에서는 20년간 첫사랑을 간직해온 지고지순한 캐릭터로 '결혼 상대 1위'에 꼽히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양현석, YG-젝스키스 극비 회동 인정



YG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양현석이 잭스키스(사진)와의 극비 회동(본지 4월 26일 단독 보도) 사실을 함구하다 끝내 인정했다. 양현석은 2일 자신의 SNS에 강성훈, 장수원, 이재진, 김재덕과 함께 찍은 사진과 '포에버 잭키' '16년 만의 재결합' 등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연예계에서는 잭스키스의 6월말 단독콘서트와 새 앨범 발표 등을 YG엔터테인먼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제청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부조사를 진행 중이다. YG측은 "정기적인 세부조사다.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선 세번째 웨딩마치



연기자 김혜선(47·사진)이 5월 결혼 소식을 직접 알렸다. 김혜선은 4월30일 한 동영상 사이트에 예비남편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염원을 가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 남자친구의 존재를 밝혔던 김혜선은 당시 "빛을 갈던 중 사기까지 당했을 때 봉사활동 단체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알린 바 있다.

이수경, 연하 회사원과 교제중



연기자 이수경(34·사진)이 연하의 회사원 남자친구와 교제중이다. 이수경의 소속사 스노우엔터테인먼트 측은 2일 "두 사람이 3월 처음 만났다"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수경은 여느 커플과 다름없이 데이트를 즐기며, 남자친구는 월화일 외모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위,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1억5000만원 늘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억5000만원 늘렸다. 영진위는 2일 "2016년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심사 결과 9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부산시와 영화제 집행위원회 간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영진위 측은 "영화제 총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시의 보조금이 차질 없이 교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영화제 개최의 양대 축인 부산시와 집행위원회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를 걱정하는 영화인들이 많아 합의를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밝혔다.

쏘스뮤직, 데뷔직전 탈퇴멤버 상대 손해배상 승소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쏘스뮤직이 그룹 멤버로 내정됐다가 데뷔 직전에 탈퇴한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A는 쏘스뮤직에 투자비용인 12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데뷔가 계획보다 5개월 미루지면서 발생한 금액까지 배상하라는 소송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는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과 안무 수업을 받던 중 이듬해 4월 회사 측과 면담 후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앱스토어 게임 매출 랭킹

순위	게임명	서비스사
1	듀오리진	Webzen Inc.
2	FIFA ONLINE 3M	NEXON Company
3	세븐나이츠 for Kakao	Netmarble Games
4	모두의 마블 for kakao	Netmarble Games
5	히트	NEXON Company
6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FingerFun Limited.
7	KON (Knights Of Night)	Netmarble Games
8	서머너즈 워	Com2uS
9	로스트 킹덤	4:33
10	프렌즈팝 for Kakao	NHN Pixelcube

김민희 "‘아가씨’ 택한 이유? 박찬욱 감독님 때문이죠"

"배우 개성 열어주는 연출자" 1500대 1 뚝은 김태리 눈길

■ 영화 '아가씨' 제작보고회

배우 김민희와 하정우는 왜 '아가씨' 여야 했을까. 연기자로 한 계단 성장할 기회, 시선을 떼기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다는 사실이 두 배우를 자극했다.

제6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영화 '아가씨'(제작 모호필름)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2일 오전 서울 소공로의 한 호텔에서 제작보고회를 열고 이야기의 일부와 작품의 분위기를 공개했다. 6월 개봉을 앞두고 한 국영화로는 4년 만에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의 성과를 올린 덕분인지 이날 주연배우들은 한껏 상기대 있었다. 현재 영화 제작진이 가장 밝히는 배우가 가진 개성을 펼쳐는 장을 열어주는 연출자"라고 밝혔다. 하정우도 비슷하다. "박찬욱 감독님은 수차례 대본 연습을 거치고도 촬영장에서 아이디어와 대사 한 마디 고칠 때 더 많은 고민을 통해 결정했다"며 "큰 자극과 배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가씨"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녀(김민희)와 거짓 신분을 만들어 그녀에게 접근하는 백작(하정우), 이들 사이에 놓인 하녀(김태리)가 한 데 얽혀 벌이는 운명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다. 이에 더해 상속녀의 후견인 이모부(조진웅)까지 네 명이 만드는 팽팽한 긴장감이 영화를 채운다. 박찬욱 감독은 2009년 영화 '박쥐'



2일 서울 소공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영화 '아가씨'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조진웅·김태리·김민희·하정우, 박찬욱 감독.(왼쪽부터) 이날 김민희와 하정우는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후 7년 만에 '아가씨'로 돌아왔다. 그 사이 할리우드로 무대를 옮겨 니콜 키드먼 주연의 '스토커'를 연출했던 그는 차기작을 고민하다 '아가씨'의 원작 소설인 '핑거 스미스'에 빠져 들었다. "소설을 읽고 완전히 반했다"는 그는 "캐릭터들이 생생하고 충격적인 반전도 있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소설을 배대단 두고 거의 전부 각색했다. 그렇게 완성한 영화에 대해 그는 "내 영화 가운데 대사가 가장 많고 그

만큼 아가씨만한 재미가 있다"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는 이체로 운 영화"라고 설명했다. '아가씨'는 기존 톱스타급 배우들 뿐 아니라 연기가 처음인 신예 김태리의 참여로도 시선을 끈다. 제작진은 하녀 역을 신인으로 캐스팅하기로 결정하고 오디션에 응모한 1500명을 만났다. 김태리는 그 경쟁률을 뚫은 주역. 박찬욱 감독은 "김태리를 선택한 것은 본능적인 직감이었다"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사고, 주눅 들지

않는 점이 좋았다"고 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서는 '아가씨'의 칸 국제영화제 초청에 따른 여러 관심도 표출됐다. 특히 비록 짧게 공개됐지만 영화 속 김민희의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이에 박찬욱 감독은 "여우주연상을 받아도 될 법한 연기"라며 "보통 칸 국제영화제는 어딘지 짙고 모호한 작품을 선호하지만 '아가씨'는 그에 어울리지 않는 명쾌한 작품이라 칸 소식은 의외였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시빌 워' 1000만 관객 시간문제

옛세만에 누적관객 400만명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의 화력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1000만 관객 돌파는 시간문제다.

상영 옛세만인 2일 누적 관객 400만명을 돌파한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캡틴3)가 여전히 90%대의 예매율을 지키고 있다. 어린이날이 겹친 황금연휴가 본격 시작하는 4일부터 흥행 돌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1000만 관객 돌파는 거뜬할 것으로 전망된다.

'캡틴3'는 개봉 첫 주말인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1990개관에서 총 2만9758번(영화진흥위원회 집계) 상영됐다. 역대 최대 상영관이자 최대 상영 횟수다. 같은 기간 매출액 점유율은 90.6%. 전국 극장의 거의 모든 상영관에서 단 한 편의 영화를 틀고, 극장을 찾은 거의 모든 관객이 그 영화를 관람했다는 뜻이다.

극장가는 할리우드 히어로 시리즈가 개봉 초반 흥성이 높은 관객이 집중적으로 몰렸다 상영일수가 늘어날 수록 그 반응이 잦아들지만 '캡틴3'의 상황은 다르다고 말한다. '캡틴3'의 마케팅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10대와 20대 그리고 여성 및 가족단위 관객의

관람률과 예매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10대 및 여성 관객은 앞서 개봉했던 또 다른 히어로무비 '베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에서 낮은 선택 비율을 나타냈다. 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캡틴3'의 화력은 감지된다.

사실 '캡틴3'는 마블스튜디오의 히어로 시리즈 가운데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앞서 1편(51만)과 2편(396만)의 성적도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3편은 캡틴 아메리카를 비롯해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맨, 앤트맨, 호크아이 등 여러 인기 캐릭터가 총출동해 '드림팀'을 꾸렸다.

덕분에 마블스튜디오의 최대 화제작으로 통하는 '어벤져스' 시리즈로 인식하는 관객이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00만 흥행작 '어벤져스2'를 잇는 '어벤져스 2.5편'이라고 평가하는 관객 반응 역시 잇따르고 있다. 탄탄한 스토리와 각 캐릭터의 개성을 놓치지 않은 완성도 역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배경이다. '캡틴3'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한다면 히어로 시리즈 가운데 '어벤져스2'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을 세운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5월가요계, '방탄' 뚝을 탄환은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1주일 차 새음반...그들 성대결

'방탄' 뚝을 탄환은 트와이스일까. 아이돌 시장에서 흥미로운 성(性)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가 대결의 주인공이다. 1주일 차이로 새 음반을 내면서 경쟁구도를 펼치고 있다. 팬덤은 방탄소년단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트와이스는 폭넓은 대중을 아우르며 사랑받고 있다.

2일 스페셜 앨범 '화양연화 영 포에버'를 발표한 방탄소년단은 예약 판매분과 국내 음반 매장의 수요를 합친 음반 선 주문량이 30만장에 달할 화제를 모았다. 새 앨범 발표를 기념해 1일 밤 발인 인터넷 라이브 방송

에는 120만명이 접속해 팬덤의 위세를 자랑했다. 호감을 표시하는 '하트' 이모티콘은 약 1억개를 얻었다. 새 앨범 타이틀곡 '불타오르네'는 이날 0시 발표 직후 국내 8개 모든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출간 시간이 시작된 8시부터 트와이스의 '치어 업'이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각 차트 정상을 차례로 탈환하며 방탄소년단을 밀어냈다. 음반은 방탄소년단, 음원은 트와이스가 각각 우세를 보인다.

하지만 4월25일 두 번째 미니앨범 '페이퍼 루'를 발표한 트와이스의 파괴력도 만만치 않다. 실시간 음반 판매량 집계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1일까지 일주일간 약 4만

1000장을 판매했다. 여가 가수 초동(발매첫주) 판매량으로는 역대 8위에 해당하는. 1위는 소녀시대, 2위 예프엑스, 3~7위도 소녀시대여서 데뷔 6개월된 트와이스의 활약이 눈에 띈다. 방탄소년단이 엑소 부럽지 않은 팬덤으로 불랑공세를 한다면, 트와이스는 걸그룹으로는 만만치 않은 팬덤에 폭넓은 대중성까지 갖춰 양공작전을 펼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7·8일 이틀간 콘서트를 벌이고 방송활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들의 화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 시장을 재편시킬 남녀 대표 신진세력의 대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흥미로워질 전망이다. 김원경 기자